
제 4 부

책이 나오기 까지

1.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2. 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책으로 인한 내 마음의 갈등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구비 구비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생극장 "내안에 있는 행복찾기"의 막을
내릴 때입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황무지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꽃”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도시도 있습니다. 지난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스쳐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뚜렷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1. 책에 쓰여 진 내용은 모두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다.

2004년 6월 12일

(일기장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1998년 어느 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소연 하듯이 그 날에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메모한 적이 있었다. 그 후에도 틈만 나면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을 자세히 쓰기 시작하였는데 계속 기록하다가 보니 일기장은 내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주로 신앙생활의 간증거리라든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들인데 실제로 믿음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이 떠올라서 그 내용을 적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록된 내용은 나의 일을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일기장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나온 일생은 내가 살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써놓은 각본에 따라 그냥 살아져 왔을 뿐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언젠가 재미있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늘나라 도서관에 가면 내 이름으로 된 일기장이 있으며 그 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과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미리 기록되어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일기장의 내용을 매일매일 나에게 불러주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따라 그대로 살아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도서관에 있는 일기장 원본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일기장과 똑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다.

2. 진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다.

2011년 3월 14일

(이 기록은 진리에 이르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일기를 읽어가노라면 세월이 흐르면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내 믿음이 변화한 과정이 사실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들은 실제 체험하였던 일들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며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를 만난 후 현재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들이 있으며 어떤 것들은 진리에서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지난 세월 방황했던 삶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해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십자가의 진리를 찾아가는 시행착오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편지이다.

2007년 8월 4일

(일기장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고백이자 연애편지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10년이란 세월동안 일기를 계속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생각과 지혜를 주셔서 아직도 일기를 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다

또한 일기장의 내용도 단순한 생활을 기록하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젠가 부터는 일기를 쓰는 도중에 생활의 방향이 정해졌고 때로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내용도 차츰 하나님께 향한 신앙고백이자 연애편지로 변해가고 있다. 하늘나라에 갈 때는 이 일기장을 꼭 가져가고 싶다. 이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2 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복잡한 사람의 인체에는 필요치 않는 조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비록 작은 책이지만 분명히 기록하 계하신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 15일 (책을 쓰는 것은 자녀를 위한 나의 책임이다.)

지난 2년간 책 쓰는데 몰입해 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쓸 때도 항상 아이들을 염두에 두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마음을 말씀에서도 찾아 볼수 있는데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로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와 같이 사도바울도 편지에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는 "십자가의 진리"이다. 즉 믿음의 본질이다. 이 책 중에는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에서 보듯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모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십자가의 진리를 자녀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것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목사의 자녀라도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자녀교육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실제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본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이를 위하여 도움을 줄 뿐이다.

그리고 나와 잘 알고있는 친지들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

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분이 계신다면 그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기뻐하실 것이다.

*고후2:4 요20:31 딤후5:8

3 책으로 인한 내 마음의 갈등

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책을 만들려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 자신 책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책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22일 (책 쓰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

요즈음 들어 책을 쓴다는 것이 마음에 매우 부담이 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글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진리의 문턱에 들어선 시점에서 별로 아는 것도 없이 진리에 대해 쓴다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온 우주만물에 근원이 되는 말씀을 다 깨달을 수는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으며 마치 내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그 설명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말씀을 사람의 생

각대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하여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무식한자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강하게 경고하신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벌을 내리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 이다. 이제는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책을 쓴다는 것이 위험하고 두려운 작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부담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주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책에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책 전체의 흐름에는 별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도 배워가는 도중임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하는 중이다.

*전3:11 벰후1:20 벰후3:16 계22:18

책을 끝내면서

책을 끝까지 읽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어서 실패하였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 자신은 지난 몇 년전부터 오히려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행복으로 가는 길"** 을 걸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찬 **"믿음과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나는 행복하다" 혹은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은 실제로 선생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끼게 된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원인 중 어느 부분은 어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행복함"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방법 역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책인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그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7월 7일

이 순욱

* 저의 지나온 삶의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나 소 그룹모임 혹은 간증 집회등을 통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내 안에 있는 행복찾기"**를 친지들에게 보내고 싶거나 성경공부 등에 참고 하시려는 분은 "문서 선교기금"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권에 만 원, 택배비 포함)

*전화 번호 : 010-3204- 4753

*이 메일 주소 : "truhapy@naver.com"

내안에 있는 행복찾기

1판 1쇄 2013년 1월 25일

2판 1쇄 2013년 5월 16일

지은이_이순옥 truhapy@naver.com

펴낸이_김홍춘 john6008@hanmail.net

편집_장유리

펴낸곳_도서출판 힐링포유

등록_1998년 11월 14일 제10-1667호

인쇄_필경사디자인인쇄(주) 02-712-1388

p5443@pilprint.com

ISBN 978-89-962664-4-0

copyright © 이순옥, 2013

비매품